

이름 적힌 안전모 100개...“이주 노동자 존재 알아줘 기뻐요”

해남 대한조선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및 안전모 전달식' 가보니

출신국·이름·혈액형 부착된 모자 받고 근로자들 '함박웃음'
1500명 중 절반 스리랑카·베트남·우즈벡 등 26개국 출신
11월까지 전달 캠페인...“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여 줄 것”

“이름이 불리니까, 이제야 회사가 내 존재를 알아 준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나를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 준다는 게 느껴지네요.”

지난 27일 해남군 대한조선에서 도장 작업을 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지양(여·30)씨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받아들이고 환하게 웃었다.

지양씨가 받은 하얀 안전모의 옆면에는 지양씨의 출신국인 베트남 국기와 국명, 뒷면에는 '지양'이라는 이름과 혈액형(O형)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이날 해남군 화원면 대한조선에서 고용노동부, 대한조선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안전모 전달식'을 열었다.

센터가 추진 중인 '이주노동자 안전모 지급 및 이름 불러주기'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안전모로, 안전모에 작업자들의 이름과 출신 국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적어넣은 것이 특징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아”, “임마” 등 비속어로 불리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불리며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전달식에서는 지양씨뿐 아니라 자수르백, 아미르, 루바트(이상 우즈베키스탄), 바라트라, 샤르마(이상 네팔)씨 등 100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안전모를 지급받았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차례로 받은 이주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다.

페인트 전 그라인딩 작업을 하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사만(41)씨는 “항상 가족들이 조심해서 일하라고 말하는데, 오늘 받은 안전모 쓰고 사진 찍어서 가족들에게 보여줄 거다. 잘 일하고 있다고”라며 웃었다.

크레인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오가벡(25)씨도 “이곳은 무거운 자재들이 머리 위를 오가고, 잠깐만 실수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기에 항상 주의해야한다”며 “작업 끝나고 식사하러 가거나 자전거 탈 때도 오늘 받은 헬멧을 쓰고 다닐야겠다”고 말했다.

안전모를 쓴 효과는 현장에서 곧바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작업 시간에 살펴본 조선소 내부에서는 벌써 작업자들 간 이름 부르기가 자연스레 확산돼 있는 모습이었다.

현장에서는 600 t, 1500 t급 갠트리(지지대)크레인이나 선박 블록을 조립중이었고, 안전모를 쓴 이주노동자들이 조선소 곳곳에서 각자 용접, 치부(가공), 그라인딩 등 작업에 열중이었다. 작업자들은 작업 도중 현장 곳곳에서 “쿠발!”, “아리!” 등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손짓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작업 시간 외에도 점심시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도 안전모를 쓰고 있어 서로를 쉽게 알아보기도 하고, 동료의 안전모를 먼저 찾은 이들이 이름을

부르며 대신 건네주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곳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총 1500여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가 스리랑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아이티 등 26개국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다. 아직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한 작업자들은 “그동안 펜으로 안전모에 직접 이름을 써 봤는데, 비라도 맞으면 금세 이름이 지워져버려 아쉬웠다”며 “우리 것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

안전모 지급 사업은 ‘안전의식’을 환기하는 효과도 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현장에서 화물차에 선박 부품을 싣던 작업자에게 현장 안전관리자가 즉시 권고 조치를 내렸다. 더운 날씨나 무의식적 습관 탓에 안전모 착용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모를 꼭 쓰도록 지속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 설명이다.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전달하는 것은 지역에 점점 늘어나는 이주노동자를, 함께 일하는 동료, 지역사회 이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또 안전모는 고국을 떠난 이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안전모 전달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그동안 이름 없이 불렸던 문화를 없애고 외국인 노동자, 한국 노동자가 서로 존중받는 작업 현장을 모두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전남 곳곳의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이름이 적힌 안전모를 전달할 방침이다. 지난 4월에는 담양안전체험교육장에서 5개국 30명을 초대해 전달식을 열었다.

/해남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베트남 출신 조선업 근로자 지양씨가 지난 27일 해남군 대한조선에서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으로 부터 안전모를 전달받고 있다.

비 대신 ‘가마솥 더위’...장마 맞아?

광주·전남 7월 9일까지 덥고 습한 날씨

‘장마철’이 무색하다. 장마전선이 중국으로 옮겨가면서 장맛비 대신 폭풍 찜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려 온열질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한반도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내면서 오는 7월 9일까지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기상청 예측이다. 다만, 다음 달 1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예보가 내려졌다.

장마철이 끝난 건 아니다.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기간은 6월 23일~7월 24일(31일 지속)까지로, 평균 강수량은 17일, 강수량은 341.1mm 수준이라 장맛비가 더 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난해에도 장마철 36일 중 23일 간 비가 왔고 392.8mm의 비가 내

렸다. 2023년에는 32일의 장마철 중 25일 비가 왔다.

무더위로 광주·전남에서 온열질환 환자도 잇따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6월 28일 광주·전남 온열질환자수는 26명(광주 4명, 전남 22명)으로 집계됐다.

28일 오전 11시 50분께 곡성을 대령리 비닐하우스에서 풀을 베던 작업 중 A(84)씨가 무더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난 26일 오후 3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 인근 도로를 걷던 B(여·66)씨도 고열, 구토 증세, 어지럼증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실내의 작업장, 논·밭, 도로 등에서는 기상청의 관측환경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광주·전남 암 환자 증가세

2022년 1만8848명으로 4년새 1700여명 늘어

광주 갑상선암·대장암 順...전남 폐암 증가 ‘눈길’

광주·전남 지역의 암 환자 발생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광주·전남 암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암 발생자 수는 2018년 6232명, 2019년 6448명, 2020년 6504명, 2021년 7220명, 2022년 713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 역시 암 발생자 수가 2018년 1만 843명, 2019년 1만 1495명, 2020년 1만 661명, 2021년 1만 1906명, 2022년 1만 1713명으로 늘어났다.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인구에서 새롭게 발생한 암 환자 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인 ‘조발생률’도 증가 수치를 보였다. 광주는 인구 10만명당 2018년 429.1명, 2019년 445.0명, 2020년 450.3명, 2021년 501.8명, 2022년 498.5명 등이었다.

전남도 인구 10만명당 2018년 577.7명, 2019년

616.9명, 2020년 577명, 2021년 649.5명, 2022년 643.5명으로 증가세였다.

광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2022년 기준 갑상선암(966명)이었다. 이어 대장암(792명), 위암(771명), 유방암(757명), 폐암(748명), 전립선암(519명)이 뒤를 이었다.

전남의 경우 폐암(1556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장암(1322명), 위암(1236명), 갑상선암(1144명) 순으로 이어졌다.

화순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전남 지역, 특히 남자에서 높은 폐암 발생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다. 2014년 이후 남자에서 발생률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타 광역시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상황으로 폐암 조과발생의 원인 규명과 예방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교법인 흥북학원 정상화 속도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흥북학원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흥북학원 임시이사회는 최근 ‘흥북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 인원을 확정했다.

추진위는 외부 재정기여자 모집을 통해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고 임시이사회의에서 꾸린 기구다.

외부 재정기여자 모집·선정방식 등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교육청은 오는 7월 28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진위가 마련한 ‘재정기여자 모집 상황 보고안’을 제출한다. 이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외부 재정 기여자 모집을 본격화한다.

시교육청은 설립자(종전 이사)를 통한 학교법인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외부 재정기여자 모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외부 재정기여자가 학교법인 등의 채무 등을 해결하고 임시 이사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새롭게 꾸려 법인을 정상화한다는 복안이다. 외부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형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보성 출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승진 내정



경찰청은 29일자로 박성주(59·치안감·사진) 광주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출신인 박 청장은 광덕고를 나와 경찰대(5기)를 졸업했다.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박 청장은 정식 임명과 함께 치안정장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59)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승진 내정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